

## 고품질 통일형벼 종자 대량 채종을 위한 이앙시기 설정

배현경<sup>1\*</sup>, 김상열<sup>1</sup>, 서종호<sup>1</sup>, 황정동<sup>1</sup>, 고종민<sup>1</sup>

<sup>1</sup>경남 밀양시 점필재로 20,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 논이용작물과

### [서론]

새미면과 팔방미는 쌀면 가공용 통일형벼 품종이다. 생육기간 동안 비교적 고온을 요하는 통일형벼 품종은 생육시기 기온에 따라 쌀의 수량과 품질에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앙시기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. 또한 가공용 통일형벼의 대량생산을 위해서는 고품질 종자의 대량생산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. 본 시험은 이앙시기 변화에 따른 통일형벼 종자의 발아율을 검정하여 고품질 통일형벼 종자의 대량 채종을 위한 적정 이앙시기를 설정하기 위해 실시하였다.

### [재료 및 방법]

본 시험은 밀양에서 2017년 채종한 쌀면용 통일형벼 품종인 새미면과 팔방미 종자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. 재배방법은 이앙을 5월 10일, 5월 17일, 5월 24일, 5월 31일, 6월 7일, 6월 14일 등 총 6기간에 걸쳐 실시하였고 시비량은 N-P-K=18-9-11 kg/10a 로 처리하였고 재식밀도는 90 주/3.3m<sup>2</sup> 로 하였다. 발아율 검사는 각 이앙기별 채종한 종자를 100립씩 3반복으로 온도조건 20, 25, 30 °C 조건에서 실시하여 발아율과 발아세 검정을 2회 실시하였다.

### [결과 및 고찰]

팔방미의 경우 5월 17일~5월 24일에 이앙했을 때 816~818 kg/10a 정도의 높은 수량을 보여주었고 5월 10일 및 5월 31일 이후에 이앙하면 수량이 감소하였는데 수량에 가장 크게 관여하는 수량구성요소는 수수였다. 발아율의 경우 이앙시기 5월 17일을 기점으로 이전에 이앙하여 채종한 종자는 모든 온도 조건에서 발아율과 발아세가 90% 이상이었으며 5월 24일 이후에 이앙하여 채종한 종자는 25 °C 이하의 발아조건에서 발아율과 발아세가 크게 감소하여 육묘시 보온을 요하는 품종이었으며 수량구성요소와 발아율 사이에 상관관계는 없었다. 새미면의 경우 5월 10일, 6월 14일을 제외한 나머지 이앙구에서 비슷한 수량을 보여주었고 이앙시기 및 발아온도와 상관없이 높은 발아율과 발아세를 보여주었다. 천립중에 있어서 이앙시기 간에 차이는 없었으며 새미면이 팔방미에 비해 3.7 g 정도 무거워 새미면의 발아율이 팔방미에 비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. 발아율과 발아세 및 쌀수량을 고려한 통일형벼 품종의 최적 이앙시기는 5월 17일 내외였다.

### [사사]

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아젠다 사업 (과제번호: PJ01380802)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다

\*주저자: Tel. 055-350-1183, E-mail. dadaeboy@korea.kr